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 소식

8월

2013년 8월 통합 252호

발행인 : 박선희 /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18-1 (양정1동 352-2,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mo1@empal.com

- 내 마음을 울린 한 마디 p2
- 기획글 | 시민이 함께 하는 부산교육(2) p4
- 회원탐방 | 떠 오르는 새 일꾼 최지선 회원을 만나다 p8
- 어린이 글 p10
- 청소년 글 p12
- K의 교단 일기(8) | 편들지 못한 저녁 p14
- 영화소모임 | 영화 '마스터'를 보고... p16
- 노귀전의 농장일기 p20
- 책 이야기 | '프루스트와 기호들' p22
- 회원 글 | 김요아킴 시인의 야구 생을 말하다<8> p27
- 회원만남의 날을 마치고 p28
- 기자회견문 p30
- 보도자료 p32
- 학부모알림란 p33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기사 p34
- 활동사진 p36
- 지부일정 p38
- 7월 회비 보고 p39



▲ 달밤트레킹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경 준

버들,

이렇게 내게 글을 쓰는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너와 내가 만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네.. ㄴ 잣 군을 전역하고, 후배인 동수샘의 손에 이끌려 ‘푸른샘’에 와서 서슴없는 아이들의 모습에 놀란 가슴을 쓰러 내렸지만, 언제나 허허 웃던 허태정선생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좋아보여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했지.

가끔씩 혼자서 구서동에 있는 본가에 갈 때마다 생각한다.

한동안 우린 저녁 아홉시가 넘어 열시가 다 되어서 집으로 가던 때, 30분 남짓한 시간동안 푸른샘에 있었던 하루를 모두 꺼집어 내어서 이야기 나누었지. 시시콜콜한 아이들의 애증관계, 선생님들 모습, 그리고 꼭 빠지지 않았던 푸른샘의 살림살이...

언제였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내가 했던 말은 어제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되새기고 되새겼기 때문 일테다.

남산동 도서관 아래에 있던 호프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였던 선배와 후배들로 이루어진 선생님들이 하나 둘 자신들의 진로를 위해 푸른샘을 떠나고 있었고,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조금씩 지쳐가던 필수형과 나는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웬만큼은 의견이 같았다고 할까? 더 정이 들어지기 전에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푸른샘에 갇들어와 열심이던 너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술잔이 몇 잔 비워지고, 버들이가 호프집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예나 지금이나 넌 근엄(?)내지 침착했지. 필수형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내가 했던 말에 필수형과 약속했던 말은 다 잊어버리고 네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 운을 떼 넌 아이들이 푸른샘에 오고 있다는 것은 표현이 서툴지만, 아직 푸른샘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다. 조금 더 힘을 써 봐야한다고 했다.

기억이 별로 신통치 않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던 그 말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것 같다. 진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공부방에 와서 선생님이 되었다. 선아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매일같이 카카오 스토리에 아이와의 일상을 올리고, 지연이 은진이 성준이들도 다들 아가씨가 되고 청년이 되었다. 네 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없었을 테지. 그때의 아이들과 함께 지나온 날들을 떠올릴 수도 없었을 테지.

고맙다. 버들.

다시 10년 후 오늘을 기억하게 되길 약속해야겠지? ㅋㅋ

(버들이 최수명 선생과 김경준 회원 두 노총각 선생이 함께하고 있는 ‘푸른샘’ 공부방은 10년이 넘게 만덕 지역 아이들에게 행복한 만남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후원자가 줄어들어 아이들을 많이 받지도 못한다는 딱한 사정 가운데 두 양반은 각기 시민단체에서 일을 해 가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버들 선생 이야기는 지역방송에서 인물탐구로 방송 된 적도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모습의 버들 선생이다.)



푸른샘 공부방을 후원하시려면 | 농협 121036-56-099017 김경준 | 부산은행 106-01-004696-0 김경준 |

시민이 함께 하는 부산교육(2)

— 교육변화 주도자로서 시민 —

성 병 창 (부산교육대학교)

Ⅲ. 부산 교육의 변화주도자로서의 시민

부산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과 노력을 위해 우선 교육변화와 관련된 주요 배경 이론들을 살펴보고, 시민으로써 어떻게 부산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1. 교육변화 배경 이론

가. 교육변화 과정

교육변화 과정이란 변화추진 주도자와 수용 대상자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는 변화 주도자가 변화 추진을 위한 하나의 지침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교육변화 과정은 선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변화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비선형적이면서 단순한 변화과정의 모형으로 대표적인 것이 Havelock과 Zlotolow(1995)의 변화 모형이다.

Havelock과 Zlotolow(1995)의 변화 모형을 CREATER모형이라고 한다. 이는 각 단계의 앞 한글자로 연결된 것이다. 그것은 Care(관심갖기), Relate(관계맺기), Examine(조사하기), Acquire(획득하기), Try(시도하기), Extend(확장하기), Renew(개선하기)의 일곱 단계이다. 이는 선형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의 과정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비선형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보다 더 단순화 시키면, Kurt Lewin의 해빙(unfreeze) - 이동(move) - 재결빙(refreeze)의 사회변화 단계와 맥락을 같이한다. 해빙은 관심갖기와 관련짓기에 초점을 둔 것이고, 이동은 조사하기, 획득하기, 시도하기, 확장하기의 단계와 관련된 것이며, 재결빙 단계는 개선하기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0단계 : 관심갖기

현 상태에 대한 불만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기본 단계로서 변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1단계 : 관련짓기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교육변화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단계이다. 교육변화 또는 학교개혁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타 단체들과 연합하여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각자 주도권을 가지고 통합하지 않은 채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연합과 협동을 위한 관계를 맺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서로에게 신뢰로운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하고, 지지자들과의 네트워크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해당사자들과의 첫 만남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작용성(양방향 의사소통), 개방성, 현실성, 동등한 힘, 최소한의 협박, 모든 관련 집단의 참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2단계 : 조사하기

이 단계에서의 활동은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것에 비유된다. 병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솔직한 의사소통과 협력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질문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체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구조가 존재하는가, 의사소통이 충분히 개방적인가, 체제는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체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작업하는 구성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는가이다.

④ 3단계 : 획득하기

이 단계에서는 관련자원을 뒤져서라도 찾아내어야 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련자원이란 전자자료, 인쇄자료, 사람, 제품 등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확인한 후, 변화주도자는 다시 한 번 초점을 좁힐 필요가 있는데, 이를 ‘돌아오기(homing in)’라고 부른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지에 대해 결정한다.

⑤ 4단계 : 시도하기

이 단계는 간단하게 말해 ‘지식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획득단계의 활동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든 관련 집단을 참여시켜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유롭게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도출한다. 그리고 난 후에 수익성, 수행가능성, 확산가능성의 3가지 차원을 통해 실현 가능성의 대안을 비교하고, 선택된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기회를 갖고 이를 처음으로 적용·실시하는 활동을 거친다.

⑥ 5단계 : 확장하기

이 단계는 간단하게 말해 ‘더 깊고 더 넓게 수용하기’의 단계이다. 수용을 더 깊게 확장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지원이나 평가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관례화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을 더 넓게 확장한다는 것은 유사한 관심과 환경을 가진 다른 체제에로 성공적으로 확산한다는 것을 말한다. 확장 단계에서는 변화 수행 중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⑦ 6단계 : 개선하기

이 단계는 계속적으로 발전적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단계로서 종결단계가 아니라 다른 단계로의 출발점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모든 변화 노력을 평가해야 하고, 이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와 같은 체제가 스스로 자기갱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자원이 투입되었는가, 자원들은 적절했는가, 진술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는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더 나은 계획과 과정을 통해 성과를 증진할 수 있었을 것인가와 같은 자기갱신 능력의 개발이 중요하다.

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변화 주도자

교육변화의 실제에서 치명적인 오류는 변화 소통의 일방향성이다. 교육변화 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쌍방향

적이어야 하고, 이는 변화주도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교환되면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교육변화의 대표적 학자인 Fullan과 Stigelbauer(1991)의 주장은 의미를 준다. 그들은 ‘교육변화의 새로운 의미(Meaning of Educational Change)’라는 책에서 변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역으로 변화 특성(필요, 명료성, 복잡성, 질/실제성), 지역적 특성(지역, 지역사회, 교장, 교사), 외 부요인(정부 및 다른 기관들)의 세 영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지역사회수준에서 변화주도자로서 교사, 교장, 학생, 지역 행정가, 컨설턴트, 지역사회(학부모)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 사회 수준에서 변화주도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사

교사는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 교육변화 주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교사들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교육변화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 대부분 교사들이 변화와 개혁을 수행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일상적 업무에 봉착해있다.

② 교장

교장은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여 그리고 학교 밖의 여러 다른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완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장 역시 교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고립된 자치권’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교장은 지역교육체제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학생

학생은 그 동안 변화주도자에서 거의 빠져있었다. 체제의 변화로 인해 가장 많은 이익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일종의 가버넌서(governance)에서 균형잡힌 목소리를 낼 때,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학생은 이러한 가버넌서(governance)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다. Cusick(1973)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가까운 친구와 나누는 반면, 공식적인 교실수업에는 최소한 신경만을 쓰는 수동적 방관자라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육변화의 참여자로서 어떤 경험과 훈련을 갖지 못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주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과 지식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변화를 거부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④ 지역행정가

오늘날 학교에서 가장 큰 변화 관련 문제는 일반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너무나도 무비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역행정가들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학교가 제안된 변화 또는 혁신에 대해 옳은 것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⑤ 컨설턴트

컨설턴트의 제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영역에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실망 스러운 정도로 그 결과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내부 컨설턴트와 외부 컨설턴트의 실제적 변화 역량이 약하고, 효과 없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컨설턴트는 교육관련 집단과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컨설턴트의 활용가능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⑥ 학부모와 지역사회

교육변화 노력에서 전형적으로 고객집단을 무시해왔다. 내부고객(학생) 뿐만 아니라 외부고객(학부모, 지역사회)들은 학교체제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과 달리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대표적

인 교육투자자들이다. 그들은 나름의 기대를 통해 세금이나 등록금을 학교에 투자한다. 부모와 지역사회의 개입은 학교발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다. 이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적당한 기능을 훈련시킴으로써 학교 이사회나 기타 지역사회 집단들이 집행을 관리하고 혼란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이러한 배려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아마도 자발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그들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게 될 때 학습결과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2. 교육변화주도자로서 시민의 역할

부산의 그동안 교육변화를 볼 때, 거의 독단적·일방적 변화 소통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여 왔다. 교육의 맥락에서 주요 고객인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교육변화에의 역할은 주도자로서보다는 수용대상자로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점은 진정한 교육변화를 유발하는 데에 제한을 갖는 것이다.

사회의 유형을 ‘개방-폐쇄’, ‘공동결정-소외결정’의 두개의 축으로 각각 분류하면 4가지의 유형이 나타난다. 폐쇄와 공동결정의 사회는 자생공동체 사회라는 게마인샤프트가 되고, 폐쇄와 소외결정의 사회는 권력사회가 되며, 개방과 소외결정의 사회는 시장사회가 되며, 개방과 공동결정의 사회는 시민사회가 된다. 사회변천에 의하면, 현재의 권력 및 시장사회에서 시민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전중근, 2011).

게마인샤프트는 주도 조직이 가족이 되며, 핵심 가치는 행복이다. 권력사회는 주도 조직이 국가나 관료제가 되며, 핵심가치는 질서와 정의에 있다. 시장사회는 기업의 주도 조직이 되며, 이익 추구가 핵심 가치이다. 시민사회는 개인들 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연합체가 주도 조직이 되며, 핵심 가치는 자치와 연대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 유형에서 시민사회는 상호개방적인 관계성을 가진 공동체 형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주권은 구성원 전체에 있다. 시민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상호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협력을 통해 변화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은 추후 주요한 변화주도자로서 등장할 것이다.

부산의 교육변화 주도자로서 시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은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의 제안에 근거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지역을 교육공간으로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변화주도자로서 역할 중요성 인식 -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공간이며, 이러한 공간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변화주도자로서 시민 양성을 위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 부산의 교육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 - 무엇이 문제인가?

○ 다양하고 자발적인 교육 연합체의 구성과 타 연합체와의 협력적 관계의 유지 -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떤 집단들과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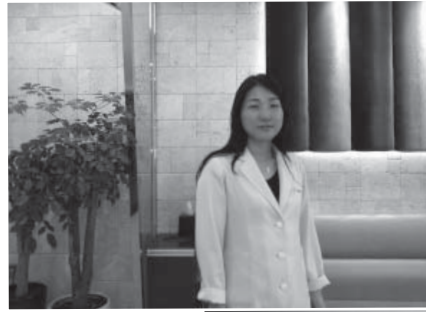
○ 부산 교육의 변화를 위해 어떤 방안과 전략을 활용하여야 하는가? - 여기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책들의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학습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학교의 에듀파크 도입이 가능한가? 부산의 교육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시민주도의 학교 만들기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가?

이 글은 지난 6월 20일 시민의제 컨퍼런스 정책학교에서 발표된 글로서 지난 달에 이어 신습니다.



● ●

떠 오르는 새 일꾼 최지선 회원을 만나다



괴정 지하철역 근처 식당 애슐리에서 최지선회원을 만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긴 생머리에 단아한 얼굴의 아직 30대 아가씨쯤으로 보이는데 두 자녀를 가진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최지선회원, 첫인상이 참 애뉘모습이었다. 식사 후에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괴정지하철역 3번 출구쪽 괴정 제일치과에 들러 보았다. 하얀 가운으로 갈아 입은 모습은 또한 멋진 의사의 모습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한 정치인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써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최지선회원을 만나보았다.

Q : 참학은 어떻게 가입하시게 되었나요?

A : 최진경(우리 회원) 선배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었어요. 2년 전에 김정숙실장님이 영도쪽으로 일이 있어 방문하실 때 최진경선배가 남편(김비오씨)과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김정숙실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써 교육활동에 일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관이 있다면요?

A : 아이들을 제가 생각하는 틀에 가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찌보면 방임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집에 일찍 오면 좋겠다고 해요. 아이가 쓴 일기장 보니 쩡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많이 바빠서 일찍 집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영도초등학교에 3학년과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도 시간대기가 어려워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여력이 된다면 운영위원활동을 제대로 해 볼 생각입니다.

Q : 어떤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A : 현재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락한알에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건치는 대학생때부터 지금까지 죽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대학생때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다른 의대생들에게 비해 치대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학생회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 건치 활동 중에는 ‘주치의 제도’라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치아케어를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정책연구소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참여할 계획입니다.

Q : 치과 진료도 여러 가지 있던데 주로 어떤 치료가 전문이세요?

A : 보철이나 틀니 치료를 주로 하고요. 임플란트나 교정을 잘하고 있지 않아요.

Q : 정치인 남편에게 바램이 있다면요?

A : 처음 남편이 출마의사를 밝힐 때 반대 의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커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남편이 국회의원이 되어 자신이 품은 큰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남편 김비오 씨는 ‘김근태의 친구들’이라는 온라인 카페 회장을 맡으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2013년 4월 영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함)

Q : 참학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A : ‘존재 자체가 희망이다’ 저도 이 말을 누군가에서 들었는데요.

참학이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다는 것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식사를 함께 해 주신 최지선회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참학행사에 참석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금같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초등 학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이 때 최지선 씨의 활동이 기대된다. 감히 떠오르는 일꾼이 되길 희망해 본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운영위원활동을 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응원할게요.

.....

예영이의 독서노트

김예영 (거학초 5)

‘내 친구가 마녀래요’를 읽고

전학은 지 별로 안되는 엘리자베스는 아주 특별한 친구 제니퍼를 만난다. 제니퍼는 냉정했다. 그리고 마녀는 남을 깨우치기, 남하고 실랑이 하지 않아하며 잘난 척도 한다. 그렇지만 엘리자베스는 ‘니가 뭔데 남을 깨우쳐?’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는 제니퍼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건습 마녀가 된다. 제니퍼는 이상한 음식을 많이 먹인다.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우두머리 마녀가 되기 위해 잘 먹는다. 엘리자베스는 하늘을 나는 약을 만들 재료, 두꺼비를 만난다. 엘리자베스는 두꺼비에게 이름을 지어주자고 한다. 제니퍼는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힐러리 에스라고 붙여준다. 엘리자베스는 제니퍼를 자기도 한 번 깨우쳤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하늘을 나는 약을 만들려고 두꺼비를 넣는데 엘리자베스는 정이 너무 들어서 풀어주고 만다. 그것 때문에 엘리자베스와 제니퍼에게는 조그만 거리가 생겼다. 하지만 마음도 맞았지만 화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마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 친구로 지냈다. 앞 이야기는 그냥 아이들의 놀이 일 뿐이다.



‘검은 여우’를 읽고

톰은 공장에 가기 싫었다. 왜냐하면 톰은 겁이 많고 숫기없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톰은 동물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 생각한다. 톰은 결국 아빠의 설득으로 농장에 가게 된다. 톰은 검은 여우를 보았다. 톰은 언젠가 박물관에 가서 뿔단배를 보고 그걸 보았다는 사실도 기뻐했던 적이 있다. 톰은 그 날도 그 기분이 똑 같았다. 검은 여우는 자유로웠다. 나는 자유로운가? 생각해 보면 놀 때는 자유롭다는 생각이 든다. 아, 톰은 그 비밀을 혼자서만 가지려 하지만 못 참았다. 그래서 헤이즐린 누나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누나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검은 여우가 계속 가족들을 잡아간다면서 이모부의 여우사냥이 시작되었다, 톰은 이모부에게 ‘타쿠마!’라고 말하고 싶었다. 타쿠마는 인디언 식이다. 팔목을 잡고 타쿠마!라고 소리치면 도움을 달라는 말이다. 만약 도움을 안주게 되면 죽게된다. 타쿠마는 인생에서 3번 쓸 수 있다. 하지만 톰은 이모부에게는 용기가 없어서 못 말한다. 이모부는 결국 아기 검은 여우를 잡아서 검은 여우를 유인했다. 하지만 톰이 풀어주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지만 검은여우는 자유로와야하고 톰은 검은여우를 보는것 만으로도 기쁘기 때문이다. 욕심이 없는 아이다.



우리 마을에 진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동물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엄마가 병아리 한 마리 준다했는데 ‘음’ 병아리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반면 이름은 안 말하겠지만 병아리를 훔쳐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미닭은 어두우면 자니깐 덮어놓고 갔다. 톰은 진주라는 애와 같다. 하지만 이모부 이모는 쉽게 이해했다. 톰은 이해해 주는 이모 이모부가 고마웠다. 나는 피티의 편지가 너무 재미있다. 편지도 기사문식으로 뭐 예를 들어, 소가 아이를 공격하다~ 당황한 과학자들! 이렇게 사생활을 기자처럼 쓴다. 그리고 설문지처럼 쓰기도 했다. 톰의 절친 피티는 꿈이 기자다. 그래서 말도 기자처럼 글도 기사문처럼 한다. 피티는 톰과 다르게 겁도 별로 없고 숫기가 많다.

예영이는 강정아 회원 자녀입니다. 어린이책 전문서점 ‘책과 아이들’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함께 늘 책읽고 쓰는 일이 생활처럼 되어있는 행복한 예영입니다. 담 달에도 예영이의 독서 노트 공개 해 볼까요?

한 여름 밤의 달밤 트레킹

김 가 빈 (금명중 2)

아버지께서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주최하는 달밤트레킹을 신청 하셨다. 트레킹에 참여하면 봉사시간 4시간을 인정해준다는 말에 살도 뺄 겸 봉사시간도 받을 겸 나는 홀랑 넘어갔다. 이번 달밤트레킹의 장소는 '신평역~을숙도~맥도공원~구포역'이었다. 나와 엄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맥도공원(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자연생태공원)부터 트레킹 일행을 만나 걷고 동생은 이모와 처음부터 걸었다. 나도 신평역부터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웠다. 맥도공원에서 걸을 때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별로 덥지 않겠네!" 라고 생각 했었는데 그것은 아주 큰 오산이었다. 그 시간 이후론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았다. 간단하게 걷고 이제 밥을 먹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모기떼의 습격을 받고 밥을 여유롭게 먹지 못하고 허겁지겁 먹었다. 웅 웅거리며 수도 없이 달려드는 모기떼에 나는 포기하고 그냥 헉헉한다고 생각했다.

앞만 보며 걷다보니 옆에 있는 낙동강을 유심히 보지 못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라고 한다. 가장 짧은 강인줄 알았는데 그 길이가 525km이다.

걷는 도중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서로 이야기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께서 트레킹 할 때에는 휴대폰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않다고 하시며 그만 끊으라고 하셨다. 원래 트레킹이란 처음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소달구지를 타고 집단 이주를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탐험, 고행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색을 겸한 도보여행을 말하고 걷는 도중에는 많은 말을 삼가하고 조용한 가운데 자연을 느끼는 것. 즉, 자연을 벗 삼아 걷는 것이 트레킹의 매력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내가 과연 진정한 트레킹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때의 나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자연을 벗 삼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은 강서구청 지하철역에서 헤어졌다.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이만큼 걸었다니!"하는 보람도 생겼다. 이때까지 달밤트레킹은 1박2일로 새벽까지 계속 걸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밤 11시에 끝이 났다. 비록 모기 때문에 일주일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다음에는 새벽을 걸어보는 달밤트레킹에 다시 한 번 참가해 보고 싶다.

가빈이는 우리 소식지에 야구 이야기를 연재하고 계시는 김재홍 시인의 자녀입니다. 이모가족까지 7명이 총 출동하여 함께 했습니다.

달밤트레킹을 다녀와서

최 유 립 (개금여중 3)

작년 달밤 트레킹이 아직 기억난다.

영국과 한국의 축구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가족은 하염없이 걸었었다. 꼬박 10시간을 걷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갔다 오고 난 뒤가 너무 좋았다. 작년 달밤 트레킹을 갔다 온 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달밤 트레킹에 대해 말할 것 같다. “저번에 봉사활동으로 10시간을 걸었는데 다리가 찢어지는 줄 알았다.” 친구들은 매일 자랑하는 내가 그렇게 걷는다는 게 안 믿겨지는 눈치였다. 등교할 때나 그렇게 열심히 걸어 보라고 편지를 썼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10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벽 4시가 되면 종아리와 허벅지가 분리된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가던 길 걸어갔는데 발톱에 피멍 든 적 있니?” 친구들 중에는 10시간을 걸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듯 달밤 트레킹은 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나도 믿겨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이 있다는 건 내가 앞으로 무언가 도전할 때 굉장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등산을 할 때도, 조금 멀리 있는 시장에 갈 때도 그 시간들이 떠오르니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작년 트레킹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가기로 결정했다. 작년에는 막내 동생을 제외한 우리 가족 모두가 갔었는데 이번에는 다들 바빠서 엄마와 나만 가기로 했다. 그런데 두 명만 가기에겐 섭섭하니 내 친구를 한 명 불렀다. 트레킹 가는 그 날, 종아리와 허벅지가 분리된 이야기를 해 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화내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걸어줘서 너무 고맙웠다. 이번 일정은 작년보다 쉬웠다. 시간부터 확 줄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모든 일정이 마치니 말이다. 사실 정말 다행이었는데 괜히 친구 앞에

서는 아쉬워하는 척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나와 친구 둘 다 중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걸었다.

달밤 트레킹에 오면 항상 그 취지가 좋다는 생각이 든다. 천천히 걸으면서 밤하늘을 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참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생각에 쓸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회가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매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친구이지만 에어컨 빵빵한 커피숍에서 죽치고 앉아 팔빙수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느낌이었다. 살살 불어오는 자연의 바람을 맞으면서 풀 위에 앉아 각자 싸운 도시락을 먹고, “저기 있는 구름과 연꽃이 참 예쁘지 않니?”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고, 한 번은 말없이 걷고 있는 친구를 서로 격려하고.. 오랜 친구 사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매일 매일 달라지는 신문 기사마다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도 그에 맞게 빨라져야 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꺼니 그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어두운 조명에도 반짝 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이때까지의 글을 읽어보니 우리 엄마는 나하고 따로 걸었던 것 같다. 이번 트레킹을 하면서 시끄럽고 말 많은 나와 친구를 데리고 같이 묵묵히 걸어줘서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다. 사실 우리 셋 중 엄마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다. 모기 물린 수만 봐도 엄마가 제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마 뿐 만이 아니라 거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나는 아마도 달밤 트레킹을 못 끊을 것 같다. 내년에도 가족들끼리 다시 한 번 달밤 트레킹을 찾아야겠다.

유립이는 김춘미 회원의 자녀입니다. 달밤 트레킹 매니아가 생긴 것 같아 무척 반갑네요.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편들지 못한 저녁

권 용 욱 (회원, 교사)

복날 근처를 더듬다 어젠 삼계탕 집에서 K를 만났다. 어느 시대든 시절의 희생자는 있기 마련이다. 잡초 뽑히듯 깃을 앗기고 할복탈장된 닭들의 운명을 깊은 염려 없이 먹어치우는 사람들의 게걸. 한 방 가득한 땀내에 흠칫 놀라면서도 그 희생의 뜨거운 맛과 동석한 우리. 위령을 하듯 K는 소주부터 주문했다. 물잔보다 작지만 빈속을 뒤집는 한 번의 목젓 올림에는 충분한 술잔이었다. 어깨를 뒤틀며 내린 빈 잔에 침착을 기다리던 K가, 창문 너머 눈길에 달려온 한 마디를 불쑥 내놓았다.

저 칼소리 들리는가? 칼소리라니? 아무리 베도 아무런 흔적 없는 저녁 하늘을 말이야 지하에서 석삼년 버린 바람 같은 칼로 마구 난자하는 저 매미들의 앙칼진 울음소리 말일세. 저건 칼소리 군무야, 열빠진 고막을 후비는 표창이야. 소주가 타는 식도의 금처럼 찢릿하고 쓰리지 않나?

에어컨의 권위로 굳게 닫힌 창문을 그래도 노을처럼 뚫고 들어오는 매미 소리가 K의 말대로 예리한 칼날이 공간을 작정하고 그어대는 칼춤 같았다. 그럼 서녁 하늘은 지금 피를 흘리는가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웬지 그런 말투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주춤 입을 걸었다. 아직 뜨거운 도가니가 보이지 않는 주방쪽을 힐끗 보더니, K는 다시 소주 한 잔으로 배고픈 기다림의 틈을 쓰게 메웠다.

도무지 어느 나무에선지 분간조차 어려운 저 자객들

의 칼질 소리 말일세. 저들의 칼날이면 하던 일도 잘리고 잠도 토막 나고, 어떨 땐 벼랑으로 내모는 선동 같지 않나. 소리는 말일세 뇌파가 말려드는 동굴이거든. 한 소리에 집중하면 말이야 그 소리가 수천 리 멀고 깊어져서 말이야, 서로 공명하여 더 증폭되고 온통 그 소리만 굴 안에 가득하지. 한 소리에 함께 울리면 그건 조화야, 아름다운 선율이야. 세상을 둘러막았지만 그래도 한 길로만 드나들면 충분한 소박하고 다정한 혈거인의 행복이지. 안 그런가.

복날 보신으로 보시된 닭들을 생각하다 뜬금없는 K의 매미 타령에 추임새를 내자니 어설퍼다. 빗대어 말하고자 하는 그의 진의도 선뜻 들어서지 않고, 너무 그러지 말게. 알고 보면 매미들도 불쌍하잖아. 빛도 없는 지하에서 수액만 빨아 먹는 애벌레의 기생 세월 동안 저들이 얼마나 무르게 살았겠는가. 겨우 어느 맑은 여름 저녁에 실낱 같은 다리로 벗어난 변태의 고통도 알아줘야지. 그 전생의 허물을 나무에 벗어두고 하루의 일각을 안달해야 하는 저들의 초조함도 이해할 만하잖은가. 어쩌면 저들도 한 시절의 유희요, 한 시절의 희생이랄 수도 있겠네 뭘.

아니, 내 말은 말이야, 저 매미들의 수고가 아깝다는 거야. 자네는 지금 매미 소리가 가련하다 하지만, 내 말은 말이야, 저렇게 제 살 맞부벼 깎아대는 절규에도 말이야, 노을은 태연하게 저물고, 산은 민둥하게 엮여져 있고, 이파리들은 햇볕 아래 굴종하고 있으니 말이야, 도무지 매미들의 칼질에 아무런 자상도 입지 않는



여름의 무덥고 답답함이 억울하다는 거지. 저 고된 소리들의 시위가 오후 내내 화살을 당겨 몸에 꽂는데도 우리는 감각 없이 소리보다 훨씬 뒤쳐진 걸음으로 느릿느릿만 있잖은가. 오히려 매미 때문에 할퀴 자국만 원망하고들 있지. 사실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런 상처도 없는 자국들인데. 그저 먼 산 너머 어느 마을에 매미 때문에 잠 못 들고 괴로웠다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나약한 소문만 믿고 말일세.

그렇기도 했다. 매미처럼 누군가가 높은 곳에 올라 깃발을 흔들며 고성하던 어느 현장을 본 적이 있다.

그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쳤다. 나도 그랬다. 그의 목소리가 지상에 닿기 전에 바람이 휘방을 놓았고, 그의 끊어질 듯 필력이는 말을 나는 한 번도 멈춰 서서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이미 혈거인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어젯밤은 삼계탕 한 그릇과 소주 세 병으로 K를 돌려세웠다. 무덥고 답답했다. 술자리를 더하면 K의 억울함이 밤을 새울 기미였다. 분명 무덥고 답답한 학교 얘기로 잔이 넘칠 조짐이었다. 미안하네, 친구. 대신에 K가 '4.19 기념행사를 마치고 보낸다'는 글을 남은 일기장에 옮겨 적는다.

지렁이

비는 내리다 말았네
사십구 번 버스 정류소 앞 보도블록
오른팔 디딤이던 우산 꼭지에 몸뚱아리 눌렀네
길, 건너다 멈추네

한 블록 이십 센티미터, 한 번 건너기 참 오랜
세월이네
숨 막힌 진탕 뚫고 이 블록 오를 때까지 젖은
자국들
이 블록 위에 잠시 얼굴 부비다 떠난 뱃나무 꽃
잎들을 지나
약삭빠르지 못해 비 타고 넘지 못한
그 긴 세월을 억척으로 건너다
버럭, 놀리고 말았네

블록과 블록 사이 낀
연하고 순한 저 땅까지는 아직 한참인데

차들은 백양터널로 그 오르막으로 잘도 달려 멀
어지네
눈도 더듬이도 수족도 없이 구불구불
비가 그쳐 걸도 마르는데
꼭, 허리 접힌 몸부림이네

이 블록만 지나면 축축한 흙살에 몸을 씻고
이 블록만 지나면 마디 서넛 더 길게 뻗고
이 블록만 지나면 하루와 화해하고 잠들 수 있
는데,
진실이 사실보다 늘 늦은 걸음이라
비도 편들지 않는 저녁,
도로 건너 버스는 혁명기념일 전단지들 밟고
서네
가야 하는데
우산, 썩 들어 치워 주질 않네



영화 '마스터'를 보고...

글 : 백미영

7월 영화모임으로 30일 저녁에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마스터'를 봤습니다~
조금 조용하고 심오한 영화여서 그런지 피곤한 몸은 계속 졸음으로...
음악은 참 좋았는데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해 감독의 인터뷰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이후 시간이 된다면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곽선희, 김혜례, 김정숙, 김종만, 함정화, 김영미, 백미영, 7명이 함께 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출처 : 씨네21 -

1. 수수께끼 같아?

폴 토머스 앤더슨이 말하는 <마스터> 뒷이야기

폴 토머스 앤더슨이 5년 만에 <마스터>로 돌아왔다. 그가 내놓은 '실물보다 큰' 마음의 지도를 따라 헤매다,

그가 어떻게 1940~50년대 미국을 복원해냈는지, 복원 과정에서 중요한 힌트로 삼은 것은 무엇인지, 그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 할 이들을 위해 한 인터뷰를 여기에 옮긴다. <사이트 앤드 사운드> 2012년 12월호에 실렸던 인터뷰다.

-〈마스터〉를 시작할 때 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이 영화의 발단이 된 최초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을 무렵, 내가 정말 만들어보고 싶었던 건 자크 투르너의 거친 영화들처럼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저속해 보이는 B무비였다. 복고풍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런 충동이 일었던 건 기억이 난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출발점이었던 건 분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프레디 켈(와킨 피닉스)같이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며 사회에 다시금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당시 정신분석학이나 그와 관련된 이론들의 확산에 영향을 받은 미국 정부는 1946년에 ‘정신보건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개념들이 서민층에까지 흘러든 결과, 사이언톨로지 같은 단체가 생겨났다고 보나.

=‘다이어네틱스’(사이언톨로지의 창시자 엘론 허버드가 주창한 심리요법-편집자)가 당시 생겨난 유일한 이론이 아닌 건 확실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동시에 아주 많은 이념과 단체가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스스로를 포장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용어가 달랐을 뿐이다. 한 단체가 한 장소에서 유독 강력해지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시에 다이어네틱스와 사이언톨로지는 영국에서도 장악력을 키워갔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아버지처럼, 전쟁에서 막 돌아왔지만 그런 것을 단 2초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강인하고 거칠었다. 과거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는 건 여자들의 수다쯤으로 여겼다.

2. 65mm만의 힘

-1996년 이후 한번도 장편영화에 사용된 적 없는 65mm 필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테스트를 해보니 65mm가 이 영화에 가장 잘 맞는 것 같더라. 고해상도를 원한 건 아니었다. 아이맥스처럼 아주 선명하게 찍는 게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65mm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다. 각자 캐릭터에 맞게 의상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한 배우들을 카메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 대개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에서 얻은 것일 그 인상과 직결되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야기에 더욱 빠져들게 하는 65mm만의 힘이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한 시도였지만 촬영을 진행하면서 결국 65mm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촬영 포맷에 관해 많이 이야기되는 게, 한편으론 긴장도 된다. 왜냐하면 극장을 찾은 사람들에게겐 특정한 기대치가 있을 테니까. 65mm는 주로 와이드 스크린용 영화나 대서사시에 사용되어 왔잖나. 그걸 가지고 실내극을 만들었으니 포맷에 대한 관심에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3. 당신, 변했니?

-마틴 스코시즈에 비교됐던 <매그놀리아>나 로버트 알트만에 비교됐던 <부기 나이트> 이후 많이 변화했다고 스스로 느끼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은 것 같나.

=변화했길 바란다. 처음 영화를 시작할 때 했던 것들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싫으니까. 시나리오 작업에 좀더 자신감이 붙은 건 맞다. 나 자신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는데 예전보다 자신이 있다. 영화를 만들려면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 준비는 됐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전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마스터>는 (내 전작들과 비교해) 좀더 수수께끼 같은 영화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친구 하나가 필립의 랭카스터에 대해 그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 필립과 한번도 얘기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영화에는 늘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기 마련인 것 같다. 만약 필립의 랭카스터가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주동자라면, 그 사실은 영화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의도한 효과는 아니다. 감독은 자신의 전략보다 자신이 전달하려는 이야기와 캐릭터를 통해 새로 발생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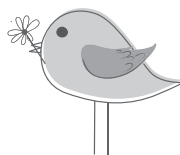
-영화의 전체적인 부분을 편집을 통해 조정하나.

=첫 작품을 제외하자면, 촬영은 예전보다 더 적게 하는 편이다. <마스터>도 적게 촬영한 편이다. 심지어, 단 하루 만에 마쳐야 하는 로케이션 촬영에서도 통제가 잘됐다. 물론 어떤 신이냐에 따라 상황도 달라진다. 영국 헤드쿼터에서 촬영한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잘 쓰였을 뿐 아니라 통제도 잘돼서 하루밤 만에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예를 들어 와킨이 벽과 창문 사이를 반복해 오가는 장면은 좀더 자유롭게 촬영했다. 시나리오에는 조금만 묘사돼 있었고, 촬영을 하며 뭔가가 더 만들어지길 바랐다. 그런 장면은, 가능하다면, 60일간의 촬영 기간 사이에 잘 계산해 넣어야 한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세트에 뛰어들어 '예술'이 탄생하길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방식은 나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다. 편집도 마찬가지다. 어떤 신은 어느 날 오후면 완성 이 되는데, 그렇게 촬영이 됐거나 애초 시나리오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다른 시퀀스에서는 유동

적인 조각들을 사운드트랙과 함께 조합해나간다. 그 과정이 진짜 재미있다. 1년 동안 편집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런 재미 때문이다. 그외 다른 신에도 그때그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어떤 장면들에서는 작은 제스처를 기민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커즈의 구성원들이 뉴욕의 파티에 도착했을 때 프레디가 여주인의 목걸이에 손을 대는 장면도 그렇다. 작은 몸짓 하나가 신의 톤을 결정한다. 관객은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될 것 같다는 예감을 받는다. 그런 것도 다 시나리오에 있었다.

=아니, 그건 와킨의 아이디어였다. 촬영 준비를 하면서 그 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15번 가까이 테이크를 샀는데, 새로운 테이크에 들어갈 때마다 무언가 다른 부분이 생겼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파티 장면에서는 수많은 배우들이 움직이니까. 필립, 와킨, 에이미만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었다. 모두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훨씬 느슨한 연출방식인 거다. 그런 경우 프레임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번 달라진다. 그렇게 찍힌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를 찾는 거다. 하지만 그 하나를 찾기 위해 2~3일씩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냥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다. 전체 촬영 기간을 감안해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이 있으니까. 가끔은 잘못해도 끼 굴에 빠질 때도 있다. 첫 테이크에 마음에 드는 것을 얻었는데도 뭔가를 더 얻겠다고 계속 촬영을 하는 거다. 그렇게 10테이크쯤 가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막상 편집실에 가서 찍어놓은 것들을 봐도 대개는 초반에 찍은 것이 더 낫다. 물론 다 내 경우다.





노귀전의 농장일기

뜨거운 7월의 농장일기~^^

분명 장마라고 했는데 부산지역은 비가 거의 안 내린 7월이었습니다.

우리 '참학 농장'의 푸른 식구들에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7월은 뜨거운 태양만이 농장에 가득했습니다.

농장 일꾼들이라야 바쁜 일상 중에서도 일요일에 와서 잠깐씩 풀도 뽑고, 물도 주는 일만 할뿐 매일 돌봐줄 수 없기에 우리 농장의 푸성귀들은 강한 인내력으로 뜨거운 여름을 이겨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밭에서 나는 채소들보다 더 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뭐든 아전인수가 제 전문(?)입니다. 그나마 채소들이 마르지 않고 자라는 건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일마치고 잠시잠시 들러 물을 주는 산타 김종만님이 계시다는 건 뒤늦게 알았습니다.

완전 초보 농군인 제가 우리 밭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밭에는 감자나 고구마, 오이, 가지, 고추, 호박 등등만 나는 줄 알았거든요. 나름 농장일기 적는 기자라고 잠깐 가서 사진 찍고, 일 조금 하고, 밥 많이 먹는 게 전부였기에 그날도 도착하자마자 사진 찍으러 밭에 갔는데 아니... 채소만 나아하는 밭에 동그랗고 예쁜 아기 수박이 세 개나 있지 뭐니까? 수박을 밭에서 본 건 처음이라 얼마나 귀엽고 신기하던지..... 마트나 농산물 시장에 나와 있는 수박이 우리 밭에서 그것도 세 개나 줄망줄망 열려 있는 게 정말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수박이 또 성큼 자라 있고요. 그 옆에는 노란 참외 세 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농장입니다. 없는 게 없다니까요~

이런 신비하고 재밌는 농장에서 '참학 회원의 날'이 열렸습니다. 저는 급한 일로 참석을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참학 회원님들은 처음 방문한 농장인데도 내 일처럼 다들 팔을 걷어 부치고 농장으로 가서 풀부터 뽑고 일부터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오신 분들은 우리 농장 꿀밥도 드셔보셨을거예요. 밥맛이 아주 그냥 꿀이거든요 게다가 적당한 일도 하셨고, 손수 딴 싱싱한 채소들로 밥을 먹었기에 임금님의 밥상이 부럽지 않을 건강을 드셨을겁니다. 자주 오고 싶으시죠? 우리 농장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풀도 뽑고, 막걸리도 마시자구요.

오늘도 비는 오지 않는 뜨거운 날입니다. 휴가철이라 모두 계곡과 바다로 피서를 가시겠지요. 여름은 여름다워야 과일과 곡식이 잘 여문다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여름의 태양같이 견뎌야할 어려움을 곳곳에서 만날겁니다. 그럴수록 우리 더 잘 여물고 단단하게 성장할겁니다. 그러니 오늘 좀 힘들어도 모두 힘내시고 뜨거운 여름을 즐겨봅시다.~



▲ 농장을 지키는 든든한 두 종만



▲ 우리 밭 호박



▲ 잘 자라고 있는 고구마



▲ 탐스런 참외까지...



▲ 가시오이와 조선오이



▲ 가지, 상추, 아욱, 열무, 깻잎, 치커리, 고추....



▲ 감자와 아욱



‘프루스트와 기호들’ | 질 들뢰즈 | 민음사

신 광 호

들뢰즈의 저서 중에 가장 쉽고 재미있는 책을 들라고 한다면 단연 〈프루스트와 기호들〉을 들 수 있다. 들뢰즈 스스로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여러 번 수정을 가한 유일한 책인데 사랑에 대한 통찰, 기억에 숨어 있는 비밀, 시간에 대한 묵직한 고찰 등등이 무작위적으로 속출할 뿐만 아니라 현대철학의 중요한 화두인 기호에 대한 본격적 사유가 펼쳐진다. 프루스트의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의 비평문의 형태를 띠었지만 예술과 기호에 대한 독립된 철학서이며, 부분적으로는 그 자체 시적 리듬을 지닌 일종의 서사시로도 읽힐 수 있다. 들뢰즈는 책을 읽을 때 두 가지 방식의 책 읽기를 권한다. 첫 번째는 추리 소설 읽듯이 읽으라 한다. 숨겨진 범인을 찾듯이 분석적이고 치밀한 논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라는 것이다. 주어진 전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비자발적 기호로 환원시키지 말고 자발적으로 현존하는 상황을 기초로 새롭게 전체를 종합해보라는 권고다. 들뢰즈는 모든 소수자를 끌어안는 절대 긍정의 낙천적 철학자이다. 그는 철학보다 예술이 보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라고 강조한다.



진리를 드러내는 작업에 예술적 기호를 운용해야하므로 들뢰즈에게 미학과 윤리학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알면 실천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존재론 속에 진 선 미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얘기한다. 칸트는 순수 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에서 각각 진리 윤리 미학을 엄격히 분리하지만 들뢰즈는 제각기 따로 채취 절단되어 있는 진선미 그리고 정신과 물질을 이접적 종합을 통해 총괄적으로 접속하고 통합된 개념으로 재생산한다. 모든 존재 모든 우주는 홀로 독립해 존재할 수 없다. 섬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닷물 속 물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들뢰즈는 개념을 중시하는 철학자다. 철학의 임무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가 창출한 술하게 많은 용어가 있는데 (따로 들뢰즈 개념어 사전이 나올 정도로....) 여기서는 기존의 일반 개념어 중에 사랑, 기호, 예술, 시간 이렇게 편의상 네 가지로 나누어 프루스트와 기호들을 정리해 보았다. 1부는 기호들 (=시간의 펼침) 2부는 문학기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의 복합)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사랑의 답론

사랑,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 속에 감싸여진 채로 있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들을 <펼쳐보이고 전개시키고자

〉 하는 우리의 노력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쉽게 우리의 〈세계〉에 속하지도 않고 우리의 타입도 아닌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29p)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타자들이 지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 이질성을 동경하듯이 낯설고 모르는 여인의 이질성으로 인해 사랑을 느끼게 된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타자에 대한 호기심이고 진리 탐구에 대한 숨은 열망이다. 사랑의 지속은 신비로움을 품고 있을 때이다. 신비로움은 펼쳐야한다. 전개시켜야 한다.

사랑에는 하나의 모순이 있다. 우리는 애인 속에 있는 미지의 세계들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그녀가 내뿜는 기호들을 해석해 낼 수 없다. 그런데 그 미지의 세계들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겨난 세계이다. (30p)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결코 사랑하는 여자 속에 있지 않다. 오히려 자기 안의 환영들과 관련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사랑의 출발은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스스로 만든 환상 속에 상대방을 대입시킨다.

사랑의 첫 번째 법칙은 주관적이다. 주관적으로 질투는 사랑보다 더 깊고 또 사랑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즉, 질투는 기호를 파악하고 해석할 때 사랑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는 것이다. 질투는 사랑의 목적지이며 사랑의 최종 도달점이다. 애인은 우리에게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자기에게만 애정이 담긴 몸짓과 애무를 바치기를 바란다.

여기서의 질투는 애인이 선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킨다. 다른 사람 연예인 같은 구체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몰두하고 있는 등산 낚시 연속극 드라마 등등 비인칭적인 사물이나 행위 등에도 적용된다.

평범한 사랑이라도 위대한 우정보다 낫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호의 측면에서 볼 때 풍부하고 무언의 해석을 자양분으로 삼아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 철학적 작업보다 낫다. 왜냐하면 기호 속에 감싸여 있는 것은 모든 명시적 의미들보다 더 심오하기 때문이다.

필자에게는 우정이 사랑보다 더 가식이 없는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들뢰즈는 진리를 찾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의 타자성을 내면으로 수용해야하는 미학자이므로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 같다. 이보다 더 리얼한 사랑 예산이 어디에 또 있을까? 사랑이 멈추면 기호 해독도 자동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삶이 무미건조해 진다.

궁극적으로 사랑의 경험은 인류 전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개체를 넘어 전체를 관류하는 어떤 유전의 흐름이 있다. (113p)

기호의 담론

기호들에 대한 숙고는 들뢰즈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기호는 사유를 강요한다. 강요당함으로써 시간 안에서 진실을 찾는다. 진실을 찾는 자는 애인의 얼굴에서 거짓의 기호를 알아채는 질투에 빠진 남자이다. 사유를 시작하게끔 자극하는 기호들은 사랑, 광기, 죽음이다.

프루스트의 작품은 추억을 늘어놓은 추억의 전시장이 아니라 기호들을 배워 나가는 과정 위에 건축되어 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이 기호들에 민감해지는 것이며 이 기호들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이다.

기호는 추상적인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깨우치고 배워 나가는 대상이다. 사랑을 하다보면 도무지 상대방의 진의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예상치 못했던 알 수 없는 요구를 하는가하면, 수미일관하지 못하고 모순되는 생각, 사랑과 증오가 갈팡질팡 교차하는 등 도무지 갈피를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기호로 떠오른다. 그걸로 고심하게 되면서 사랑은 깊어진다. 오해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의를 깨닫는 순간이 있다. 그 건 우연한 기호로 온다.

대상을 우연히 마주친 대상에게끔 하는 것,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호이다. 사유된 것의 필연성을 보장하는 것은 마주침의 우연성이다. (41p)

프루스트가 제일 강조한 테마는 “진리는 미리 전제된 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유 안에서 행사된 폭력의 결과이다.”(아아니! 폭력이라고.....? 해독하기 힘든 기호를 만나면 그 강력한 포스에 맞대응해야하니까, 그 강력한 포스는 가혹한 폭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애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음의 상처보다 더 큰 폭력이 어디에 있겠는가?)

기호는 우연한 마주침과 강요된 압력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호를 기호가 지칭하는 대상과 혼동할 때가 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마주침을 그냥 지나쳐버린다.

여기에 들뢰즈의 예술관이 바로 드러난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하는데 그 손가락을 본다. 악역을 맡은 탈렌트가 지나가면 “저 놈 나쁜 놈”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혼동이다.

손가락과 연기하는 탈렌트는 기호일 뿐이다. 결국 기호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내용을 찾는 것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것이고 그게 진리 찾는 작업이고 동시에 아름다운 마주침이고 그것이 예술이다. (전술한 것처럼 직접 진리 찾기보다 아름다운 마주침을 더 강조한다.)

다시 말해 들뢰즈는 궁극적으로 철학적 작업은 모두 예술 작업으로 통합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술의 담론

틀뢰즈의 인식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가진 인상들에 대한 생각이다. 모든 인상은 절반쯤이 대상 속에 있고, 우리 인간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절반은 우리 자신 속에 걸쳐져 있다는 점.....

우리는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또 오로지 예술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판사람의 눈에 비친 세계에 관해서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시간을 되찾게 해주는 것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예술 작품밖에 없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최고의 기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는 근원적인 복합, 진정한 영원, 절대적인 근원적 시간 속에 있다.

어떻게 본질이 예술 작품 속에서 육화하는가? (예술의 기호들과 본질에 대한 설명은 다소 어렵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만큼 반복해서 다른 변주로 설명되고 있다. 슬쩍 지나치다보면 앞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구절 문장들이 뒤늦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본질은 질료 속에서 육화한다. 예술의 기호는 비물질적이고 다른 기호들보다 우수하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본질적 차이이다. 본질은 바자별적인 추억을 통해서 실현되거나 육화된다. 객관성은 예술 작품 속에서만 가능하다. 작품의 형식적 구조 속에만, 다시 말해 스타일 속에만 있다. 객관성은 명확한 내용들, 고정된 본질들같은 관념적 의미들 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의 담론

칸트는 시간을 직관의 형식이라고 했지만 현대 과학은 관찰하는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보편적 시공간으로 사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 철학에서도 시간을 배제하고서 존재를 이야기할 수 없게 모든 존재를 운동의 과정으로만 파악되어 진다. 따라서 불변하는 본질이 고착된 상태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구 전통적 형이상학에서의 영원불변한 존재만이 실재라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간은 그 자체로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기 위해 <육체들을 찾아 다닌다. 그러다가 육체를 만나기만 하면 어디서든 그들을 붙잡아 그 위에 자신의 환등기를 비춘다.>

시간은 일직선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사건의 배경이나 직관의 형식으로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태어난다. 베르그송의 영향으로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심리적 상대적 시간을 존중한다. 베르그송은 “전체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했고, 키에르케고르는 “순간은 주체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특권적인 시간”이라는 멋진 표현을 했다.

시간은 궁극적 해석자이다. 조각들을 동시에 정렬하지 전체를 정렬하지 않는다. 시간은 바로 모든 공간들의 횡단선이며 전체를 형성하지 않는 조각들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것은 결국 진리 찾기의 과정 이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기억>으로 인한 황홀경은 연속적인 현재의 시간을 환원하는 체험이다. 이 초월의 체험을 푸르스트는 <초시간적인 것> <순수한 상태의 시간> 또는 <영원성>등으로 부른다. 들뢰즈는 책의 결론에서 거미를 예로 들며 비자발적 사유의 대미를 장식한다. 예컨대 거미는 비자발적이게도 강도 높은 파장을 타고 자신의 몸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서야 그 진원지를 향해 달려드는데 이는 오직 기호에 대해서만 응답하는 거미를 말하는 것이다.

상황에서 드러나는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고, 해독하고, 번역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진실 찾기'인데, 이 과정은 기호 자체의 전개와 뒤섞이기 때문에 시간이 관계되며, 진실은 시간의 진실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잃어버린 시간은 존재를 변화시키고, 존재했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지나가는 시간일 뿐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는 잃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다는 의미는 잃어버린 시간이 영원성을 갖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시간 안에 진실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곧 배움의 본질입니다. 사랑, 기호, 예술에 대한 담론도 그러했지만 시간에 대한 들뢰즈의 독창적인 사유 역시 매혹적이지 않나요?

.....





팀워크, 갈등과 소통의 변주법

김재홍 (회원, 부산 경원고 교사 · 현재 사회인 야구선수로 활동)

5회 말 콜드 경기로 패한 더그 아웃은 장비 챙기는 소리 만 요란하다. 흔히 사회인 야구는 5회까지 상대 팀과의 접수가 10점 차로 벌어지면 남은 시간과 상관없이 종료된다. 어찌 보면 몇 주를 기다려온 경기이기에 콜드게임 패는 팀으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뼈아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감독의 몇 마디 관전평과 함께 모두 다음 경기를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약속이나 한 듯 뒤풀이 장소로 몰려간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비워내며 몇 순배의 술잔이 돌면 이어 터져 나오는 불과해진 목소리들이 있다. 경기에 진 이유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이다.

수비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투수는 야수들의 실책에 불만을 털어놓는다. 평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을 놓쳐 잡아야 할 아웃카운터를 주자로 대신하며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야수들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는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며 투수의 볼 컨디션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볼 끝을 채지 못하고 왜 미는 듯이 던지느냐, 제구가 되지 않으니 볼넷을 남발하고 그러다 보니 공이 한가운데로 몰려 상대 팀 배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운다. 그러다 화살은 어느덧 감독에게 날아가 왜 투수 교체 타임이 늦었느냐는 질타로 이어진다.

감독은 팀의 투수 자원이 열악하고 그래도 에이스인 선발투수를 믿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록 경기 초반 접수를 많이 잃었지만, 우리 팀 타력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상황을 지적한다. 몇 번의 득점 찬스에서 중심 타선의 무기력한 스윙, 그리고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견제사와 어이없는 주루 플레이를 들며 매 순간 집중하지 못한 선수들의 정신력을 꼬집는다. 이렇게 서로 따지는 잘잘못에 비례하여 자기변명도 커지면서 갈등은 정

점을 찍는다. 이어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혹은 다음 시합을 위해 마지막으로 술잔을 부닥치며 일요일 밤은 깊어간다. 이런 풍경은 흔히 사회인 야구를 하는 팀이라면 한 번쯤 겪는 일이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여러 명이 서로 호흡을 맞춰 최상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전력이 극대화할 수 있다. 선수와 감독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양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는 팀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소통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하지만 이런 소통도 갈등의 연속을 넘어설 때 가능해지며, 흔히 명문이라 불리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은 바로 여기서 나누어진다. 비록 팀원끼리 충돌이 있었다지만, 이는 더 나은 진전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다음 있을 경기에 좀 더 집중하며 서로의 눈빛과 동작을 알아차리는 플레이, 이 때문에 잘하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가 각기 맡은 몫을 충실히 해낼 때 진정한 팀워크는 완성되는 것이다.

남보다 나를 앞세우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도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만큼 불협화음이 생긴다. 계층과 세대 간 나아가 지역과 민족 간의 갈등과 반목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누적되고, 이를 해결할 실마리와 공통분모는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나 선적인 구조로 발전한다는 당위적인 명제를 떠올리며 그 해답을 야구에서 얘기하는 팀워크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한 야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본다. ‘그라운드 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마음이 되었을 때, 이기겠다는 마음이 그라운드 위 모두의 마음을 묶을 때 그 시합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야구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참학 회원만남의 날에 다녀와서

김 동 희

이번이 두 번째 참석이다.

봄에 주말농장에 고구마캐던 날 처음 참석했을 때 생소한 우리식구들이 어색하지 않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둘러앉아 각자 싸가지고 온 갓은 먹을거리들과 막걸리로 담소 나누며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떠올라 두 번째 참석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었다.

양산에 위치한 참학농장은 처음 가보는 곳인데도 마치 예전부터 왔었던 것처럼 편안한 장소로 느껴졌다. 아마도 이 날 오신 분들이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맞아주셔서 더 그랬던 것 같다.

도착하자마자 장갑을 건내 받고는 잡초를 뽑으라는 지령을 받고 얼떨결에 열심히 잡초를 뽑았다. 아들은 감자캐기조에 편성되어 열심히 흙을 파고 있고....!

농사짓는 힘든과정에도 참여 못했는데 이렇게 수확만 해도 되는 걸까 내심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참학농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마치 나도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일하는 데도 재미가 있었다.

나누는 일손들이 많아서인지 수확이 금 새 끝나고 점심식사준비가 시작되었다.

식사준비를 하는 내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웃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내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연배가 있는 분들과 함께해도 마음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참학식구들 처럼 여유 있고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집안 식구들 외에 다른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적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학 회원 만남에 날은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 관심과 배려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란 생각이 든다.

자연속에서 수확의 기쁨도 느끼고 함께 둘러앉아 각자 준비해 온 한 두가지 음식으로도 훌륭한 잔치상이 차려지는 곳! 좋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학회원 만남의 날의 매력인 것 같다.

두 번 밖에 참석안했는데 벌써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으니 말이다.

사실 그날 돌아갈 때 오이며 가지며 고추며 마치 시골친정나들이 다녀 온 기분이 들도록 일일이 회원들에게 채소꾸러미를 안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오이냉국할 때 가지나물 무칠 때 마다 참학농장에 놀러간 날이 떠오르니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이 내 마음속에 저장된 것이다.

김동희 회원은 아이쿱 부산동래 생협 이사장으로서 바쁜 시간 쪼개 아이와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싱싱한 수박, 구운 계란, 마늘 빵 까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남희선씨네 귀염둥이



오랜만에 오신 최한



김진아



남희선씨 장남



남희선

감자캐기 지도하는 김의철



훌륭한 밥상



다리 밑 식탁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채용 관련 감사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부산시 교육청은 전 사립학교 대상 교원 채용관련 감사를 실시하라 -

최근 보도에 (부산일보 2013-07-22, 23) 따르면 부산의 모 사립중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를 미끼로 기간제 교사에게 8천만 원을 챙긴 행정실장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재단 이사장 조카인 그는 평가점수를 바꿔치기 하면서 채용 면접 1위를 탈락시키고 돈을 받고 평가 점수를 올려 1위를 둔갑시키는 수법을 써서 정규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간제 여교사의 고교 은사인 현직 고교 교사까지 개입해 양쪽 ‘거래’를 알선해 주고 5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한다.

우리사회의 임용고시는 ‘바늘 구멍’이다. 공립 경쟁률이 20대 1을 넘고, 비인기 교과 일 경우 한 해 한 명도 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에 사범대 졸업자 상당수는 사립학교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여기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학교측의 뒷돈 제의도 수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1억은 기본이라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사립학교의 교사임용관련 비리는 사학의 고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척결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이를 시정하려는 교육당국의 노력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기간제 교사 임용에서 시험 문제 유출, 금품수수 등이 있었던 사학 재단에 불법 교원 채용 임용을 취소하라는 압박과 재정 지원 감축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체면치레를 한 예도 있다.

하지만 2012년 다시 한 사립고 교감이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인 문제의 교감은 이 고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비리를 저질렀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법적인 근거 없이 교원으로 전직된 사건이 보도 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청은 사학의 교원 임용권자가 재단에 있다는 것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데 있다..

교원채용비리로 인한 피해는 비단 기간제 교사 1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

모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광범위한 규모의 불법 행위가 배움의 장인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는 데 우리는 교육청에 그 책임을 묻고싶다.

더욱이 이번 사건 보도가 나간 다음 날 (7월 23일 오후 4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청렴 최상위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2013년도 반부패·청렴정책과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개선대책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종합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보고대회 자료에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청렴도 개선 정책은 나와있지 않았다.

이는 부산 교육청이 진정 사학 비리 척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언제까지 책임은 교원통제와 경제적 문제 등을 핑계로 비정규직 교사를 불법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있다고 교육청은 사건이 터질 때 까지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누군가 양심선언을 하거나 검,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면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을 사전에 불법을 감시하고 이를 지도 감독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

부산교육희망넷은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진 부산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 전 사학에 대해 ‘교원 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교원 임용 관련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부산교육희망넷에서는 국가에서 사학재단에 대해 교원 인건비와 재정 결함을 지원해 주면서도 정작 임용권은 재단에 있다는 불합리성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3년 7월 31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교수노조, 민교협, 부산교육연구소,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전교조, 부산여성단체연합, 장애인부모회, 부산 YMCA,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부산여성회, 교육희망구별네트워크)

학교 현장을 외면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의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을 수행할 교육과정의 과부하, 수많은 활동, 그리고 부족한 교직원 수, 입시부담에 의해 특별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내용은 매우 세분화되고 많은 영역을 담았으나 실행은 어렵고 형식적인 성과보고로 처리 될 소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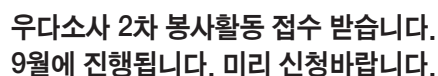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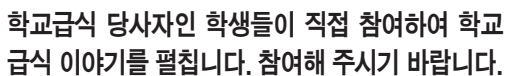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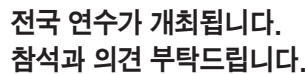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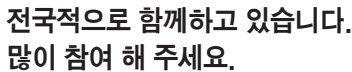
1. 그동안 가장 문제로 제기되었던 학교폭력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입시 경쟁 교육에 맞춘 포화상태의 교육과정 개선 없이 수많은 대책을 어떤 시간과 경로로 수행할 것인지 모호하다.
2.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 등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이 없다.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 등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학교폭력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만들어야한다.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자치 활동 보장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전환이 보이지 않는다.
4. 교우관계 회복기간, 학교폭력분쟁조정지원센터 설치 등 회복적 정의, 관계 회복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대상을 관계적 유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도 관계적으로 풀어야 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5. 피해학생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 지원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지원범위가 간병급여까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장해급여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빠른 시일 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6.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평가에 반영하고, 예방활동 모범학교에 포상을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 예방 활동보다 실적 쌓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학교폭력 관련한 성과급지급 혹은 실적 평가 등은 학교폭력의 근본 예방과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식적 접근을 가중하는 이러한 조치는 비교육적 조치이다.
7. 이번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학교현장에 책임지우는 조치이다. 학교폭력 발생의 기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이 되기에 매우 부족하며 관계기관합동 대책다운 학생복지, 자치활동보장, 교육과정 검토 등은 해당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정부대책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중장기 계획을 재논의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이번 대책을 수정하고 학교현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3년 7월 23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알림란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부산시민단체, 사립학교 교원채용 감사 촉구

참교육학부모회와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등 부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31일 오전 10시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채용 감사를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최근 부산 모 사립중학교에서 정규직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에게 8천만원을 챙긴 행정 실장이 구속된 사건을 예를 들며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진 시 교육청이 부산지역 전 사학에 대해 교원 임용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가장 큰 문제는 사학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당국이 사학의 교원 임용권이 재단에 있다는 것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배움의 장인 학교 현장에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에 그 책임을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 교육청에서 최근 청렴 최상위 부산교육 실태를 위한 종합보고회가 열렸지만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개선 대책은 나와있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연합뉴스 / 조정호 기자 / ccho@yna.co.kr / 2013-7-30

부산교육청, 사립학교 교원채용 실태 조사해야

교육단체, 사립학교 교원채용 관련 감사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부산지역 12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31일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사립학교 교원임용 실태 조사 및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우선 금품수수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일부 사립학교의 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립 경쟁률이 20대 1을 넘고, 비인기 교과일 경우 한 해 한 명도 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에 사범대 졸업자 상당수는 사립학교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여기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학교측의 뒷돈 제의도 수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1억은 기본이라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이러한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번번이 제기되어 왔다. 참가자들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청은 사학의 교원 임용권자가 재단에 있다는 것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데 있다”며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 우리는 교육청에 그 책임을 묻고 싶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비리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산시교육청에 교원 임용 실태 조사와 교원 임용 관련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국가의 일정 부분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의 임용권이 재단에게 있는 불합리성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 정민규 / hello21 / 2013-07-31

되풀이 되는 사학 비리…시교육청 감사 제기능 못해

부산시교육청의 감사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부산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채용 때 금품이 오고 간 혐의(본보 22일자 4면 보도)가 드러나는 등 매년 사학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 12곳으로 구성된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31일 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사립 학교 채용비리에 대한 보도가 심심찮게 터져나오지만 시교육청은 사학의 교원 임용권자가 재단에 있다는 것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움의 장인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한 규모의 불법 행위가 매년 되풀이되면서 학생들과 기간제 교사가 피해를 보는 만큼 시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시교육청이 금품수수 비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데 있다. 최근 적발된 중학교의 경우 2년 전 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성적조작으로 부정 채용한 사실은 밝혀냈지만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교장·교감 등 관련자 6명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채용비리 관련 ‘공공연한 비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부산지역 전체 사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사학 비리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31일 관련 기자회견을 여는 데 이어 부산교육포럼과 함께 사학비리 근절에 관한 토론회와 워크숍도 계획 중이다.

부산일보 / 정달식 · 윤여진 기자 / edu@busan.com / 2013-07-30

서부산권 새 기회 ‘자공고’(자율형 공립고) 성적 향상은 거북이 걸음

특목고는 물론 일반계 고교 수조차 적은 서부산권에 유일하게 많은 학교가 있다. 이른바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다.

자공고는 일반 공립고 중 자율형 사립고 수준으로 자율성을 확대한 고교를 지칭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에서 각각 1억 원 씩 매년 지원한다. 부산지역에서 지정된 13곳 중 8곳이 서부산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자공고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돼 있다.

자공고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역 문화재 및 해외문화 탐방 프로그램, 전문직업인 초청 직업세계 특강 등 프로그램의 호응이 좋다.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서부산권 학생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서부산권 자공고의 한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공고에 지원했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자공고는 첫 지정 이후 5년 뒤에 재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재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다. 게다가 올해 교육부 지원예산이 학교당 3천여만 원 정도 삭감되면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자공고 교장은 “서부산권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유형무형의 성과가 많은 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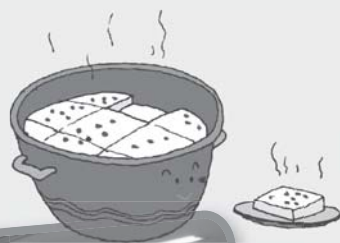
부산일보 / 윤여진 기자 / 2013-07-25

활동 사진

달밤트레킹



체험학교- 숙개떡과 수박화채 만들기



활동 사진

체험학교- 쑥개떡과 수박화채 만들기



기자회견





7월 이리렇게 보냈어요

- 7월 1일 임원회의 / 체험학교 쑥개떡 만들기 실습(장현숙, 조정화, 김정숙)
- 7월 3일 국정원 규탄 집회 참석(곽선희, 이규남, 배종만, 김정숙, 김종만)
시민의제컨퍼런스 코디네이트 회의- 민주시민교육원(김정숙)
- 7월 4일 부산시발전연구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관련단체 간담회'-장유성
- 7월 11일 시민의제컨퍼런스 교육분과 회의-12개 의제 선정 (김정숙, 장유성)
- 7월 13일 부산시국대회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으러 왔습니다'-서면 (김정숙, 김종만, 김경준)
- 7월 14일 회원만남의 날 -참학농장(곽선희, 이규남, 임주연, 최혜진 가족, 편국자, 김정숙, 김종만, 함정화, 김의철,
조정화, 김동희 가족, 김석준, 최한, 남희선가족, 김진아, 장현숙, 정찬호, 김성희, 손재광,)
- 7월 15일 모라초등 쑥개떡 만들기-조정화, 장현숙, 김정숙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7월 16일 학생징계조정위원회-김정숙
부산교육포럼- YMCA (김정숙)
- 7월 17일 창신초등 쑥개떡 만들기- 송화선, 이남숙, 류정애, 김정숙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원탁토론회-부산시청(장유성, 김정숙)
- 7월 18일 명호초등 쑥개떡 만들기(이남숙, 류정애, 조정화, 김정숙)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이사회
- 7월 20일 '2013 달밤 트레킹-신평~ 강서구청 (29명 참석)
- 7월 24일 식생활교육 전국 이사회 참석-서울(김정숙)
- 7월 25일 최지선 회원 탐방



7월 회비를 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석희,강순금(2만),강아련,강재성,강정아,고내현,고창민,고혜경,공외정,곽선희, 곽은순, 곽차섭, 곽태순, 권서용, 권영순, 권인근,김경선,김경숙(5천), 김경준,김경화,김경희(A),김경희(B), 김계선, 김기영, 김동철, 김동희, 김법기, 김석준, 김성미, 김성희, 김수영, 김수진, 김영미(A,5천), 김영숙, 김영희(A), 김영희(B), 김옥량(2만), 김옥순(2만), 김원재, 김은정, 김익수, 김재홍, 김정숙(2만), 김정애,김정열(5천), 김정원,김종만,김종찬, 김중철(2만), 김지원, 김진아,김차름, 김춘미,김현봉, 김현준, 김형선, 김혜례, 김호정, 남광우,남희선, 노귀전, 노기섭, 노영민, 노혜영, 노희정, 류정애, 맹일영, 문명숙, 문영식, 문인숙, 문재경(5천), 문혜정, 민문식, 박경아, 박덕수(2개월),박무준, 박미순, 박성미,박유미, 박은숙, 박준건, 빅희옥(2개월),배문주, 배선임(3개월),배종만, 백미영(5천), 백성희, 백점단, 부지환,서경애, 서권석, 서석태, 서인석, 서정자(5만), 서정호(A),서정호(B),석은경, 선석열(2만), 성인심, 손건태, 손재광, 송경희, 송명희,송미순,송부희, 송승희,송언경, 송철동, 신광호(2만),신수자, 신영희,신지원,심미숙, 심성보, 안종기, 양윤자, 여진호, 오봉숙, 왕병구(2만),우성만,유동철,유명희, 유은정, 윤내경(2만),윤송태, 윤신옥, 윤연섭,윤영근, 윤영이,이경애, 이규남(2만),이금숙(5천), 이남숙, 이내훈, 이병숙, 이선애, 이성하, 이수진, 이승중, 이영주(2만),이은정, 이인경, 이일권, 이재홍, 이재희(5천), 이정인,이정형, 이종명, 이진희,이행봉, 이혜숙,이혜영, 이희주, 임석규, 임선희,임영선, 임주연,장동제, 장말선, 장미자(5천),장선희(2만), 장순옥, 장유성, 장은숙, 장정인, 장지숙, 장현숙, 전순실, 정동주, 정동희, 정미경, 정봉애(2만),정수련, 정윤숙, 정이덕, 정재천, 정찬호,제진희, 조금제, 조명숙(3만), 조병준, 조석현, 조원국, 조정화(2만), 주우명, 주정현, 지영경(5천), 채승영(2만),최경희(A), 최경희(B), 최미경, 최영순, 최은화, 최점순, 최정홍, 최종수, 최지선(2만), 최한, 편국자, 함정화, 함현주(3개월),허미경(3개월),허운영, 홍동희, 홍정희, 황마리아,황선애, 황송미,황보덕, 황은옥(2만)

■ 7월 결산 보고

수입	지출내역	지출금액	이월금
이월금 6,445,515	중앙 분담금	564,960	6,497,515
	연대회비	120,000	
회비수입 2,365,000	사무실 운영비	415,680	
후원금 0	소식지 발송비	107,360	
	소식지 인쇄비	330,000	
이자수입 0	상근자 급여	500,000	
	사무실 임대료	275,000	
기타수입 0			
수입 합계 8,810,515	지출 합계	2,313,000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계좌번호 : 101-2001-6612-01 부산은행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주요사업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운동
-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 문의상담
-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교육강좌·소모임 활동

전국 각지부별 월례 교육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좌
- ◆ 소모임활동 : 교육문제연구, 역사탐방, 동화모임, 미술모임, 글쓰기, 풍물 등
- ◆ 부모역할 훈련
-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 지부별 월례교육 강좌

출판·홍보활동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은 ‘학부모신문’발간

-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 신입회원, 임원교육자료집 발간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음 없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18-1
(양정1동 352-23층)

문의 : 051)556-1799

<http://hakbumo.or.kr>